

곡성군,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으로 '이가 튼튼 잇몸 튼튼'

주민 구강 건강 지키기 위해 치아 관리 무료 서비스 제공 "치과 진료비 부담 줄이길...다양한 구강 건강 증진 추진"

곡성군 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 주민의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치아 관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원은 올해 8개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보건교육 및 치아 불소 도포를 무료로 실시했다. 불소 도포는 고농도의 불소를 치아 표면에 직접 발라 충치를 예방하고 세균 등에 의해 형성되는 산에 잘 견디게 함으로써 치아를 보호하는 시술이다. 충치 예방 효과는 약 40~70%로 알려져 있다. 의료원 측은 아동들의 평생 구강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매

년 불소 도포를 실시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구강 보건 교육과 불소 도포 지원 외에도 틀니 살균 세척기 무료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틀니 관리가 어려운 고령 주민들을 위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틀니 살균기를 공공시설에 설치한 것이다. 현재 의료원과 육과 통합보건지소,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에 틀니 살균기가 설치되어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구강 건강 사업도 운영한다. 지역 장애인 시설인 삼강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구강 검사와 스케일링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의료원과 협약을 맺은 치과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강 검진, 치아 홈 메우기, 스케일링 등 예방 중심의 진료와 초기 치아우식증 치료와 같은 구강 질환 치료에 대해 지역 내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의료원 구강보건사업 담당자는 "군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를 잘 활용해서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구강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혜영 기자



화순군, 킬트 공예반 교육 수료식 개최

교육생 23명 수료...휴식·삶의 질 향상에 도움

화순군이 농촌생활문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킬트 공예반 교육이 지난 16일 수료식을 열고 교육생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생활문화 보급을 통한 주민의 문화 향유 욕구 해소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11월부터 12회를 운영하며 23명의 수강생이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이날 수료식은 아생화 파티션, 토트백, 파우치 등 교육생들이 완성한 작품에 대한 총평, 교육 소감, 수료증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한 교육생은 "수준 높은 킬트 기법과 응용법을 익히고, 가정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실습을 하여 좋았다"며 "바늘과 실, 천을 만지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 내 삶의 질이 한층 더 좋아졌다"고 말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살기 좋은 화순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농촌생활문화 교육으로 킬트공예, 친환경생활용품 등 5개 과정, 769명의 수강생의 교육을 지원하며 지역 농촌 활성화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시 보건소,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녹색건축물 탈바꿈

국비 35억원 확보, 10년 경과된 보건소·보건지소 등 13곳 리모델링

나주시 보건소가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녹색 건축물로 재탄생한다. 나주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보건소 본소 1곳과 보건지소 12곳 등 총 13곳이 선정돼 내년 상반기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예방을 위해 노후 건축물 성능을 개선하는 국가 그린뉴딜 정책사업이다. 준공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 된 보건소, 공공의료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생활환경, 신기술시스템, 미관 등을 신축 건축물 수준으로 리모델링한다. 시는 공모 선정에 힘입어 국비 35억원을 확보했으며 시비 15억원을 더해 내년 상반기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보건소 본소와 보건지소 12곳 건물 리모델링에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리모델링은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목표로 건축물에 내·외벽 단열재, 고성능 창호 교체, 고효율 냉난방장치 및 LED조명 설치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 실내 공기질 시스템 향상과 한여름

지붕의 뜨거운 태양열을 반사해 건물 온도를 낮추는 쿨루프(Cool Roof) 공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소는 이번 공모사업에 대비해 사업 발굴 수요조사와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목표했던 보건소 본소를 비롯해 12개 보건지소가 모두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보건소 전체 공간의 에너지 성능과 공기질을 높이고 시민이 최적의 환경에서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나주=송준표 기자

담양산타축제, 23~25일 메타프로방스·원도심서

야간경관 조명·포토존·공연·이벤트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담양 산타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린다. 18일 담양군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25일 까지 메타프로방스와 원도심 일원에서 '산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주제로 담양산타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3년 만에 열리는 제4회 담양산타축제는 담양의 특색을 담은 크리스마스 경관 조명과 포토존,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 마켓을 운영해 담양에서의 선물 같은 하루를 선사한다.

관광명소인 메타세피아길을 선물상자 조명과 리본으로 장식하고 메타프로방스 곳곳에 야간경관 조명과 포토존을 설치, 이국적인 분위기를 살려 방문객들이 야간까지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중앙공원에는 성탄트리와 조명을 설치하고 중앙로에는 포인세티아꽃을 곳곳에 배치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담았다. 고척대 페어데이드와 캐럴, 재즈, 마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도 준비됐고 원도심 중앙공

원에서 이어지는 버스킹공연과 담빛예술창고 산타음악회, 담양 LP음악축전소의 캐럴 페스티벌을 통해 연말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또 메인 이벤트인 '루돌프 빨간코를 찾아라!'는 경품추첨을 통해 매일 금 1돈과 다양한 담양 특산품을 선물하고, 영수증 이벤트, 스탬프투어 이벤트, 크리스마스 프리마켓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소비가 순환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병노 군수는 "산타축제는 겨울 관광산업을 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3년 만에 열리는 담양산타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 | | | | | | |
|--------|----------|--------|---------|--------|--------|-------|
| POSCO | 포스코인터내셔널 | 포스코건설 | 포스코케미칼 | 포스코에너지 | 포스코ICT | 포스코광판 |
| 포스코SPS | 포스코엔텍 | 포스코O&M | 포스코기술투자 | 포스코티미남 | 포스코A&C | |